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14⟩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④

中庸者 위然嘆曰吾 嘗見恥智不逮
중용자 위연탄왈오 상견치지불체
才之不敏而 輟於學者
재지불민이 철어학자
未見恥飮食 不如他人之多而輟飮食者
미견치음식 불여타인지다이철음식자
輟飮食則廢其命 何必恥於不多耶
철음식즉운기명 하필치어불다야
輟學問則同夫禽獸土木 何必恥才智之
철학문즉동부금수토목 하필치재지지
不如他人耶
불여타인야

중용자(고산선사)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너가 일찌기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재주가 민첩하지 못해 배우기를 그만두는 사람은 보았으나

음식이 남과 같이 많지 않아(좋지 않아) 음식 먹기를 그만두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많지 않음을 부끄러워 하며

학문을 그만두면 무릇 금수·토목과 한가지 이거늘 어찌 재주가 남 같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랴.

苟恥才智 不如而不學則
구치재지 불여이불학즉
亦應恥飮食 不如他人 則廢飮食
역응치음식 불여타인 즉폐음식
以是觀之 豈不大誤乎
이시관지 기불대오호
吾亦至愚也 每攝才與智不逮他人者遠矣
오역지우야 매취재여지 불체타인자원의
由知飮食之不可輟而不敢怠於學也
유지음식지불가철이불감태어학야

진실로 재주와 지혜가 같지 못하다하여 배우지 아니하면

또한 응당 음식이 남 같지 않다하여 곧 음식을 폐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어찌 크게 그르친게 아니리오 나 또한 지극히 어리석은지라 매양 재주와 지혜가 남에 미치지 못한지 오래이나 음식을 거둘 수 없음을 아는 까닭에 감히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行年 四十有四矣 雖病且困
행년 사십유사의 수병차곤
而手未常釋卷 所以懼同於土木禽獸耳
이수미상석권 소이구동어토목금수이
非敢求聖聖域也 亦非求乎聞達也
비감구진성역야 역비구호문달야
雖或彷徉戶庭 夷猶原野 以暢頑愚
수혹방양호정 이유원야 이창이양
目觀心思 亦未嘗敢廢於學也
목관심사 역미상감폐어학야

내 나이 44세에 비록 병들고 괴로우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것은 초목·금수 같아질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나는) 감히 성현자리에 나아감을 구하지 않고 또한 명성과 입신출세를 구하지도 않나니

비록 뜰을 배회하고 들판에 나가 거닐어도 잠시라도 정신을 기르고 북돋우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헤아려 또한 감히 배움을 폐하려 하지 않았다.

由是 登山則思學其高 臨水則思學其淸
유시 등산즉사학기고 임수즉사학기청
坐石則思學其堅 看松則思學其貞
좌석즉사학기견 간송즉사학기정
對月則思學其明 萬境森列 各有消長
대월즉사학기명 만경삼열 각유소장
吾悉得師而學之
오실득사이학지
萬境無言 而尙可學 況人之能言
만경무언 이상가학 황인지능언

"물에서 맑음을, 바위에서 견고함을 배우듯 만물은 말이 없으나 모두 스승삼을 수 있다"

雖萬惡 必有一善也
수만악 필유일선야
師一善而學之 其謂曰不然乎
사일선이학지 기수왈불연호

이러므로 산에 오르면 그 높음에서 배우고 물에 가면 그 맑음에서 배우고

바위에 앉으면 그 견고함에서 배우고 소나무를 살피면 그 곧음에서 배우고

달을 대하면 그 밝음에서 배우니 만가지 경계가 늘어선 게 각기 늘고 줄음이 있으매 내가 다 스승삼아 배웠노라

만물은 말이 없되 오히려 배울게 있으니 하물며 사람이 말함에 있어서랴.

비록 만악이라도 반드시 한가지 선이 있으니 한 선을 스승삼아 배우면 그 누가 그렇지 않다 하리오

中庸子, 曰世有求之而或不得者也
중용자, 왈세유구지이혹부득자야
世有求之而必得者也
세유구지이필득자야
求之而或不得者 利也
구지이혹부득자 리야
求之而必得者 道也
구지이필득자 도야

중용자 이르되, 세상에 구해도 혹 얻지 못하는게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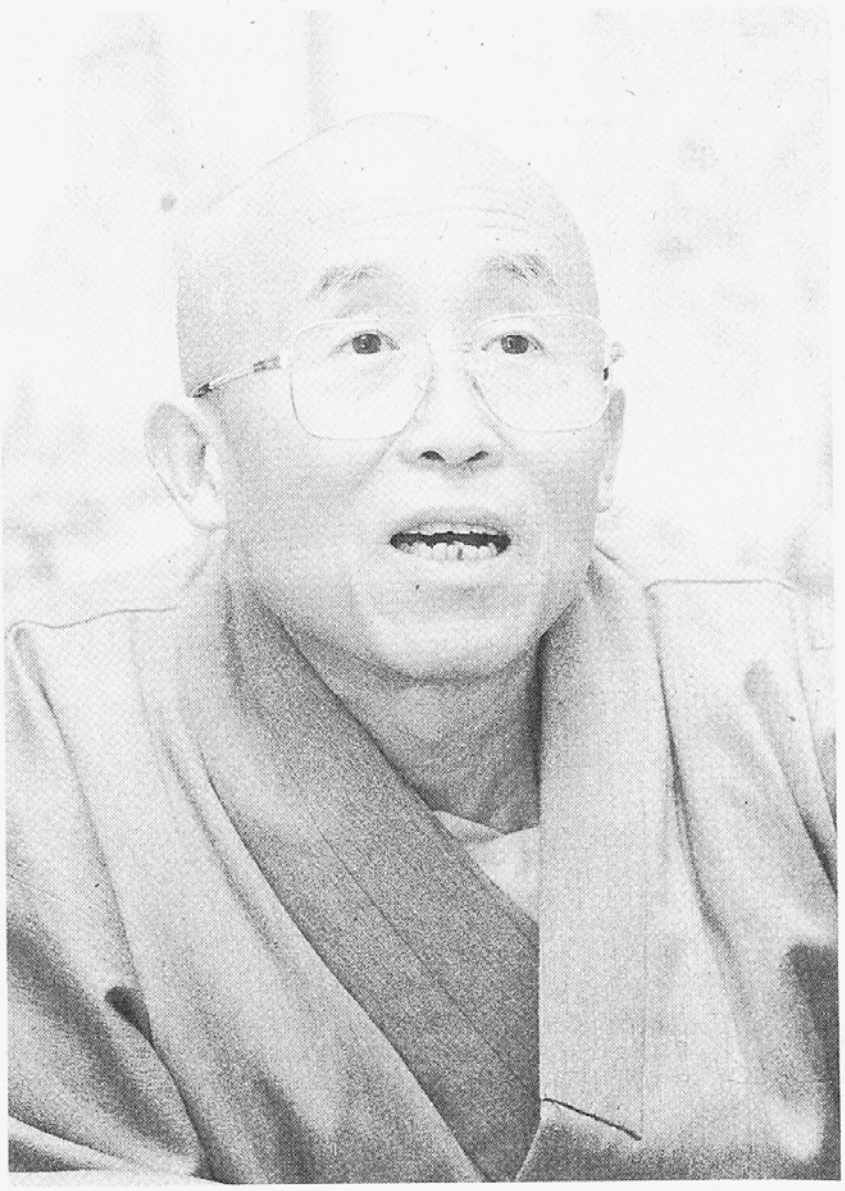
세상에 구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으니

구하여 혹 얻지 못하는 것은 이익이요 구하여 반드시 얻는 것은 도이다.

龍眼

★ 지 상 법 석

"믿는 마음 확실하면



월운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약력
- 1928년 11. 12 경기 生
- 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졸
- 57~61년 통도사 강사
- 봉선사 주지
- 현 동국역경원장
- 저서 〈극봉탑〉 〈삼화행도집〉 〈달처럼 구름처럼〉 외 다수

부처님께서는 도(道)를 이루시고 너무 기뻐서 일주일(초칠일)동안을 속으로 혼자서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제 2칠일 동안에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죄스러워서 드디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개의 3천대천세계 딘진수품,〈상품화엄경〉이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그대로 얘기하시니(如證而說) 아무도 알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3칠일에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중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를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너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나는 너보다 나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바탕위에서 모든 생각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중생에게 적당한 약으로 인과응보를 말씀하시게됩니다. 아

부처님은 중생이 너와 나를 설정하고 생각을 시작하므로 그 약으로 20년간 인과 법문을 설하셨다

함부를 12년, 방등부를 8년(阿含十二方等八) 간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내용들로, 20년 동안을 선업에는 선과가 오고 악업에는 악과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정직한 이웃집 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몹시도 가난했을 때 입니다. 하루는 밤 한 되를 형의 어머님이 사다가 삶아서 놓고 "너는 하나도 먹지 말고 동생을 다 먹여라"하고 나갔습니다. 이미 어머님은 형이 많이 먹고 동생을 조금 먹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형은 하나도 안 먹고 동생에게 삶은 밤을 억지로 먹이고 안먹으려 할 때는 자빠뜨려 놓고 방망이로 밀어넣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렇듯 착한 것이 착한 것으로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악한 것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선을 닦아라 악을 물리쳐라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지나자 선이 일종의 형식적인 선이 되고, 악을 물리치는 것도 형식적으로 흘러 선을 얼마만큼 닦았다 악을 얼마만큼 물리쳤다는 집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집착을 없애기위해서 반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야'하면 우리는 마하반야, 금강반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중 금강반야라는 것은 금강의 견고하고 날카롭고 밝은 세가지 성품을 반야지혜에다 견주어 말한것 입니다. 마하반야는 모든것을 포용할때 진짜 큰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작은것보다 크다는 절대적인 지혜이지요.

불자님들도 부처님이 20년동안 설하신 인과법문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도를 깨달으신 부처님은 총명하고 상냥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지혜와 자비라 함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것으로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항상 침착하고 조용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서는 조용히 사물을 관단할 수가 없습니다. 열반적정이라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되어 진정한 자신에 눈떳을 때에 얻어지는 경지이지요.

경지를 얻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이며 진실된 자신에 눈뜨지 않는 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 자신에 눈뜨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이라고 단정한 자신의 것이 얼마나 작고 이기적인 자기였던가를 알것입니다. 이런 작은 이기적인 자기가 타파되고 보다 큰 마음을 가진 자기에 눈뜨면 타인에 대하여도 착한 마음씨가 용솟음치게 됩니다.

높은 산봉우리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밑에서 안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산봉우리에 올라서서보면 하계가 잘 보입니다. 밑을보면 어째서 작은일에 얽매였을까 하고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산위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기에 눈이 뜨이면 작은 차별은 없어지고 모두가 친밀하게 서로 돕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괴로움이 곧 자신의 괴로움으로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상냥하고 연민의 정이 깊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소중한 일이며, 이 지혜와

발행 10일 만에 재판 돌입

下山

이홍주 장편소설

젊은 수행자의 고뇌와 파계,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한 스님의 월북 기도와 〈下山〉

1989년 유난히 키가 크고 마른 한 젊은 스님이 민통선 철책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월북을 기도한 혼주 스님의 결망 속에는 〈下山〉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이 희두와 같은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下山〉은 그 후 금서가 되고 말았다

〈下山〉의 재출간, 또 다른 파문

'어떻게 스님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현대의 불교 소설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젊은 날의 구도와 파계, 번민과 깨달음……
이제, 우리는 이 보석과 같은 소설을 더이상 금서로 만들 수 없다

화제작 〈下山〉에 주어진 문학적 평가

'작가가 직면했던 신앙과 관능, 교단과 사회와의 모순과 갈등이 이실히 표현되어 대담하게 던져진 문제작'
— 1967년/시인 趙芝薰

'젊은 수행자가 겪는 한국 불교의 고뇌상이 절절히 묘파된 본격적인 불교 전위 문학'
— 1967년/작가 金東里

'우리 문학사에서 분단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휴전선에서의 희생자 작가가 쓴 현실과 역사 인식 소설'
— 1995년/문학평론가 임헌영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4, 6판 / 양장제본 / 248쪽 / 값 5, 500원

불지사 전화 / 편집부 (02) 277-2676, 영업부 (02) 263-1941

선으로 가는 길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꼬?

글 · 김형균

禪의 세계를 비수처럼 파고드는 선 이야기 131 !!

달마 이래 동양의 선을 활짝 꽃피웠던 기라성 같은 선사들, 언어를 초월한 언어로써 깨달음의 실체에 접근했던 기상천외한 대화, 그 1,500년 전의 묘미를 정갈한 필치로 담아낸 131가지의 선 이야기.

이것은 핵심의 메아리이다.
일체의 군더더기나 너절한 사연들을
단칼에 잘라 버린 나머지,
그 칼에 맞은 단층에 박혀 있는
핵심만을 빼낸 것이 틀림없다.
— 시인 高 銀의 추천사 중에서 —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4, 6판 / 양장 제본 / 값 5, 000원

편집부 : 277-2676 동쪽나라 영업부 : 263-1941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 : 718-0973~4 • 호출기 : (015) 305-3933 • 담당자 : 이 계 천